古典學派 價値論의 再檢討(1)

洪　　起　　玄

古典學派의 가치론의 두 조류인 지배노동가치론과 투하노동가치론을 정학적 분석범위 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양자 모두 자연가격 또는 長期均衡價格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제시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그 분석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미스와 맬더스에 의해 주로 개발된 支配勞動價値論은 주로 經濟成長과 경제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변수의 신질치를 구하는 관심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미시적 가격이론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요—공급이론과 결합되어야 하는데 스미스나 맬더스 모두 아직 이론체계를 완전히 개발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리카도의 投下勞動價値論은 계급별 소득분배의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相對價格 變化에 따른 분배분의 변화를 단순화시키는 편리함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론은 임금재와 비임금재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려는 一般均衡的 分析이 시도되어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아직 이론의 일관성 면에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 序　　論

古典學派는 경제학설사상 경제이론을 체계화한 학파로서, 특히 스미스, 맬더스, 리카도의 價値 및 分配理論은 각종 경제학사 교과서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스미스의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언급은 현대 微視經濟學의 가격기구 분석에 관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고 보는 Arrow and Hahn(1971)의 견해가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限界革命의 추진자들인 제본스, 왈라스, 멩거 등이 고전학파 가치론의 논리적인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후, 新古典學派 經濟學에 대해 우호적이든 비판적이든 현재까지 많은 경제학자의 평가를 보면 고전학파 가치론의 分析的 寄與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왈라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학설사가인 Schumpeter(1954)는 고전학파 가치론의 기여를 그리 중시하지 않고 있다.

슘페터 이후 고전학파 가치론의 의의를 再解釋한 연구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新古典學派的 입장에서 Hollander(1973, 1979, 1987)가 다년간의 면밀한 연구 결과, 고전학파 가치론도 일관된 需要供給說에 기초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영국

(1) 본 논문은 1992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한국전력 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것임.

케임브리지학파의 Eatwell(1975), Garegnani(1982) 등의 해석으로서 고전학파 가치론은 신고전학파와 분석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Sraffa(1960)의 이론에서 보듯이 나름대로 論理的인 一貫性을 갖추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차 문헌과 함께 이 두 가지 해석을 참고하여 古典學派 價値論을 재검토하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학파 가치론의 分析目的이 신고전학파와 다르며 나름대로 독특한 체계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이 아님을 보이려고 한다. 오히려 論理的 不完全性이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실천적 목적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節에서는 스미스와 맬더스의 支配勞動價値論을 소개한 후 이를 평가하고, 第3節에서는 리카도의 投下勞動價値論의 구조를 일차 문헌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第4節은 간략한 요약과 시사점을 담고 있다.

2. 스미스와 맬더스의 支配勞動價値論

2.1 스미스의 價値論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스미스는 價値 및 價格理論에서 다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하였다. 우선 스미스는 가치라는 말에 두 가지 사용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商品의 소비에서 얻는 만족감을 표시하는 使用價値(value in use)와 상품의 交換比率(value in exchange)을 나타내는 교환가치를 구분한 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비례하지 않음을 주장했다[WN, p. 28]. (2) 소위 '스미스의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관한 파라독스' (Smith's water-diamond paradox)로 알려진 이 주장에 근거하여 많은 해석자들은 스미스가 효용이 交換價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본다. 그러나 Hollander(1987, p. 62)는 스미스가 效用과 價値間에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아닌 더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지, 결코 효용이 가치에 주는 영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문헌적인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스미스 자신도 뚜렷이 서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어쩌면 판단이 내려지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앞으로 理論的 體係를 재구성한 후 보여지겠지만, 스미스가 규모와 가격간에 명확한 관계를 밝혀 두지 않았기 때문에 效用과 價値間의 관계도 불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스미스의 『國富論』(*Wealth of Nations*)은 E Cannan ed Modern Library(1937)판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하 [WN]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해당 페이지를 나타냄. 국문 번역은 金秀行譯(1992)을 참고로 하였으나 문맥상 약간 달리 번역한 곳도 있음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스미스는 市場經濟에서 관찰할 만한 장기적인 상태로서 동일한 요소에 대한 收益率이 모든 부문에서 동일한 자연상태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가격도 자연상태에서 성립하는 自然價格(natural price)과 이를 중심으로 하여 변동하는 市場價格(market price)을 구분하였다. 즉 "자연가격은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끊임없이 끌려가는 말하자면 중심가격(central price)"〔WN, p. 58〕이다. 스미스의 자연가격이란 바로 현대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長期均衡價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이 단기균형가격인지 아니면 불균형가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스미스는 어떤 상품이 自然價格을 가질 때 그 상품을 사려는 수요의 정도를 有效需要(effectual demand)라고 부르고 있으며, 시장가격, 자연가격, 유효수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어느 특정상품의 市場價格은 시장에 실제로 출하되는 상품량과 그 상품의 自然價格, 즉 그 상품을 시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지대, 임금, 이윤의 가치 총액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需要 사이의 비율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효수요자라고 불리며, 그들의 수요는 有效需要라고 한다〔WN, p. 56〕.

스미스는 시장에 나오는 상품량이 유효수요보다 적으면 市場價格이 自然價格보다 높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자연가격을 규제하는 교환가치를 설명의 대상으로 제시한 스미스는 勞動量이 가치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노동가치론으로 표현되는 이 설명에는 잘 알려진 대로,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 投下勞動價値論과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노동량을 기준으로 삼는 支配勞動價値論이 있다. 스미스는 이윤과 지대가 가격에 포함되는 상업사회에서는 투하노동량(labor embodied)과 지배노동량(labor commanded)이 다르며, 지배노동량이 價値尺度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스미스는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적 점유가 없었던 초기의 原始社會에서는 각종의 물품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勞動量의 비율이 물품들 상호간의 교환에 어떤 법칙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WN, p. 47〕이라고 말하여, 투하노동가치론의 適用範圍를 한정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 초기의 原始社會에서는 노동생산물 전체가 노동자의 것이며, 어느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 데 일반적으로 支出되는 勞動量이 그 상품이 일반적으로 구매, 지배, 교환할 수 있는 노동량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要因"〔WN, pp. 47~48〕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미스는 자본이 특정한 사람들의 손에 축적되거나 한 나라의 토지가 모두 私的 所有로 되면, 투하노동량과 지배노동량은 달라지며, 가격은 支配勞動量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가격의 모든 상이한 구성부분들의 진정한 價値는 그들 각각이 구매, 지배할 수 있는 勞動量에 의해 측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노동은 가격중 勞動으로 분해되는 부분의 가치뿐만 아니라 地代로 분해되는 부분과 利潤으로 분해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한다〔WN, p. 50〕.

나아가 스미스는 지배노동량이 價値尺度가 되려면, 노동의 가치 자체가 금이나 은처럼 변해서는 안되며 일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에서 발생되는 고통이 보통 노동자에게 같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같다고 말한다.

> 동일한 勞動量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價値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건강, 체력, 혈기의 보통 상태에서는, 그리고 숙련, 기교의 보통 정도에서는 동일한 勞動量에 대해 동일한 분량의 안락, 자유, 행복을 희생해야만 한다. 노동자의 희생은 그가 대가로 받는 商品量이 많든 적든 항상 동일함에 틀림없다. 물론 노동자는 勞動의 대가로 때로는 보다 많은 商品을 구매할 수 있고, 때로는 보다 적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변동하는 것은 상품들의 가치며 상품들을 구매하는 노동의 價値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가치가 결코 변동하지 않는 노동만이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궁극의 尺度다. 勞動이 모든 상품의 진정한 價格이고 貨幣는 그들의 名目價格일 뿐이다〔WN, p. 33〕.

노동에 따른 수고와 고통(toil and trouble)이 통상 같다는 데서 價値尺度로서 노동량을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스미스의 견해를 Schumpeter(1954, p. 310)는 勞動非效用價値論(labor disutility theory of valu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견해는 물론 정당하지 않다. 왜냐 하면 동일한 强度를 가진 노동이라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각 노동자에게 주는 非效用의 程度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강도를 가진 한 시간의 노동이나 숙련도가 다른 노동자의 勞動量을 동일한 노동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스미스는 이에 대해 이것이 "어떤 정확한 尺度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는 충분한 대체적인 同等性에 따라 시장에서의 흥정에 의해 조절"〔WN, p. 31〕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노동자가 소비하는 財貨의 量에 의해 결정되고, 각 재화의 가치가 支配勞動量에 의해 측정된다면, 임금의 차이에 의해 熟練勞動을 보통의 노동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순환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支配勞動價値論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실질임금이 일정하다는 가정은 단순히 편의적인 가정으로 보아야 하며, 어떤 절대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스미스가 이런 자의적인 가정에 왜 그렇게 의미를 주고 있는지는 그가 가졌던 실천적 관심이 經濟成長

에 있었으며, 경제성장의 관건이 남은 잉여를 가지고 얼마나 새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데서 나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Meek (1956, p. 66)는 利潤과 地代 때문에 생기는 지배노동량과 투하노동량의 차이가 潛在的 蓄積(potential accumulation)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스미스가 보았다고 평가한다. Roncaglia (1978, p. 68)는 자본액을 임금률로 나누면 雇傭量을 알 수 있고, 잉여액을 임금률로 나누면 새로 고용되는 勞動者數가 되므로, 두 수량의 비율이 잠재적 고용증가율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한다. 스미스가 『國富論』의 冒頭에서 주장하듯이, 經濟成長이 생산적 노동자의 비율과 분업의 정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함수라면, 潛在的 雇傭增加率은 경제성장률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임에 틀림없다.

스미스의 관심이 이와 같다면 실질경제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尺度로서, 지배노동량을 굳이 고집할 이론적인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스미스도 이를 인식하여, 가치의 尺度로서, 곡물(corn)[3]이나 다른 대표적 商品도 무방하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 勞動은 가치의 유일하고 정확한 보편적인 尺度이며, 모든 시기와 장소에서 상이한 상품들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每 世紀마다 각종 상품들의 진정한 價値가 그 상품들의 대가로 주어지는 銀量에 의해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每 世紀마다 그 가치를 곡물량에 의해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매 세기마다 그리고 매 년마다 그 가치를 勞動量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매 세기마다 가치를 測定하는 데는 곡물이 銀보다 나은 척도다. 왜냐 하면 세기가 지나면서 동일한 양의 곡물이 동일한 양의 銀보다 더욱 근사하게 동일한 量의 노동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연년에는 동일한 양의 銀이 보다 근사하게 동일한 量의 노동을 구매할 것이므로 銀이 곡물보다 나은 척도다 〔WN, p. 37〕.

이와 같이 스미스의 관심이 가격설명 그 자체 보다도 經濟成長에 있었으므로, 스미스에게는 임밀한 상대가격이론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진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스미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실질경제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物價指數와 같은 척도였으며, 이는 쌀이나 곡물, 노동량과 같은 한 가지 財貨로는 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석목적상 일정한 제한성을 같고 있음은 현대 경제학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다.

2.2 스미스 價格理論에 대한 數理的 檢討

이제 스미스의 교환가치에 관한 설명이 상대가격결정이론으로서 論理的인 整合性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간단한 數理的 模型을 구성하여 보겠다. 이 모형은 스미스의

(3)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기 경 당시 영어로 corn이란 것은 모든 곡물의 대표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당시 主食이었던 밀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穀物로 번역하였다.

시술과 Brems(1986)의 모형을 참고로 하여 스미스의 견해를 최대한 간략하게 재현하는 데 目的이 있으므로,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에 관한 행태방정식은 거의 없이 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調整過程에 관한 동학적 설명도 거의 없다는 제한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먼저 곡물과 제조품의 두 재화로 구성된 경제를 상정하고 각 財貨의 自然價格(p_i, $i=1,2$)이 스미스의 언급대로, 임금(w), 지대(n), 이윤(r)의 자연율의 합으로 계산된다고 하자. 또한 곡물과 제조품의 産出量이 각각 X_1, X_2이며, 각 財貨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량이 L_i, 토지의 양이 N_i라고 하고, 자본은 流動資本(circulating capital)으로서만 구성되어 임금과 지대의 先貸資本(advance)이라고 하자. 자연가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각 부문의 산출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p_1X_1=(1+r)(wL_1+nN_1), \tag{2.1}$$

$$p_2X_2=(1+r)(wL_2+nN_2). \tag{2.2}$$

이 식을 산출량 1단위당의 식으로 고치기 위해 부문별 勞動投入係數를 $a_i=L_i/X_i$, 토지투입계수를 $b_i=N_i/X_i$라고 쓰고, 이 계수들이 기술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각 재화의 價格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p_1=(1+r)(wa_1+nb_1), \tag{2.1'}$$

$$p_2=(1+r)(wa_2+nb_2). \tag{2.2'}$$

위 두 방정식은 5개의 변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방정식이 필요하니. 우선 하나는 스미스의 제안대로, 價値尺度財(numeraire)로서 노동량을 택하여 얻을 수 있다. 즉 $w=1$로 놓는다면, 가격이 支配勞動量으로 측정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개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이는 분배변수에 관한 스미스의 논의에서 추론하여 얻을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스미스의 주장대로, 利潤과 地代가 0인 경우, 즉 $r=0$, $n=0$인 경우에만, 가격이 투하노동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財貨間의 교환비율이 투하노동량의 비율과 같기 위해서는 지대가 0이거나, 부문간 勞動—土地投入比率이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왜냐 하면, (2.1')과 (2.2') 식에서 가격비는 다음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n=0$ 또는 $a_1/b_1=a_2/b_2$인 경우 價格比와 投入係數比가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frac{p_1}{p_2}=\frac{(wa_1+nb_1)}{(wa_2+nb_2)}=\frac{a_1}{a_2}.$$

이제, 스미스가 分配變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추가적인 방정식을 구해보자. 먼저, 賃金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國富論』의 제 1 편 제 8 장을 보면, 스미스는 需要—供給分析에 가까운 임금기금설, 임금의 외생적 결정을 암시하는 생존비설, 임금의 제도적 조정을 시사하는 세력설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 많은 해석가들 사이에서도 스미스의 의견에 관해 논란을 일으키게 한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해석중 다수 의견은 Samuelson(1978), Garegnani(1984) 등에서 보듯이 임금이 주어진 실물적 임금재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해석이다. 이 견해가 맞다면, 自然賃金은 관습적으로 주어진 임금재의 量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임금재의 수량이 노동 1단위당 c_1 이라면, 賃金率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것이다.

$$w = c_1 p_1. \tag{2.3}$$

이 경우 賃金財인 곡물을 척도재로 삼는다면 (즉 $p_1=1$) 상대가격은 다음과 같다.

$$p_2 = \frac{b_2}{b_1} + b_2 c_1 (1+r)\left(\frac{a_2}{b_2} - \frac{a_1}{b_1}\right).$$

이 식에서도 우리는 지대와 이윤이 없거나($b_1=b_2=r=0$), 양 부문의 勞動—土地比率이 같은 경우($a_1/b_1=a_2/b_2$)에는, 가격비가 요소투입계수와 같음이 확인된다. 임금에 관한 식 (2.3)이 맞다면, 지대에 관한 한 가지 방정식이 추가되면 價格方程式體系는 완결될 수 있다. 예컨대, 가장 열등한 노지의 지대가 0이라면(즉 $n=0$), (2.1′), (2.2′), (2.3)에서 변수는 p_1/p_2, w, r 세 개인데 대해, 방정식도 세 개가 되므로 解가 존재할 초보적인 기준이 만족된다.[4]

이와 같은 가장 간단한 方程式體系는 사실상 앞으로 보게될 리카도의 모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몇 가지 매력적인 현실적 시사점을 가지므로 古典學派의 대표적 모형으로 많은 해석가들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Hollander(1973, 1987), Negishi(1988) 등이 지적하듯이 스미스 『國富論』의 텍스트를 읽어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근거가 취약함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賃金에 관한 스미스의 서술을 보면 스미스는 自然賃金이 어떤 사회에서 일정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한 사회에는 勞動, 資本의 각종 사용처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 이윤이 존재한다. 이 平均水準은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 즉 그 사회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진보하고 있는가, 정체되고 있는가, 또는 쇠퇴하고 있는가 등에 의해 규정된

(4) 물론 陽의 唯一解가 존재할 것인가는 좀 더 탐구가 필요한데, 대체로 여기서 소개된 신형방정식 체계에서는 經濟가 自足的이거나 성장가능하면 양의 가격체계가 존재함을 Perron-Frobenius 정리를 이용해 쉽게 보인 수 있다.

다〔WN, p. 55〕.

이 인용문에서 스미스가, 한 사회가 進步하는가(advancing) 停滯되는가(stationary) 退步하는가(declining)에 따라 자연임금이 결정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 하면 成長經濟에 있어서 자연임금은 자본 증가와 노동수요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미스는 임금에 관한 章에서도 자연임금이 資本成長率의 函數임을 서술하고 있다.

> 그러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需要는 그 나라의 輸入, 자본의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증가하며 그것 없이는 증가할 수 없다. 輸入과 資本의 增加는 국부의 증가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國富의 증가와 함께 자연히 증가하며 그것 없이는 증가할 수 없다.
>
> 勞動賃金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은 국부의 현실적인 크기가 아니라 국부의 계속적인 증가다. 따라서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영하고 있는 나라, 즉 가장 급속히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다〔WN, p. 69〕.

스미스의 위의 언급이 경험적으로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하튼 스미스가 自然賃金이 임금기금(wages fund)과 결혼 및 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규모에 의해 결정됨을 밝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WN, p. 79〕. 나아가 스미스는 높은 임금이 노동자의 근면을 증대시켜 勞動生産性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WN, p. 81〕. 한편, 스미스는 『國富論』 제2편 자본의 사용에 관한 설명에서, 자본증가는 이윤에서 나오며, 이윤율이 높을수록 資本增加率도 높음을 언급하고 있다〔WN, pp. 320～321〕.

이러한 스미스의 전반적인 사고를 볼 때, 스미스에서 자연임금 결정요인은 資本增加率, 나아가 利潤率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w=h(r),\quad h'>0. \tag{2.3'}$$

물론 위의 (2.3′) 식에서 나타나는 賃金과 利潤率의 양의 關係와, 식(2.1′), (2.2′)에서 도출되는 임금—이윤율 역관계를 나타내는 要素價格邊境(wage-profit frontier)을 함께 고려하면, 自然賃金은 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이 자연임금—자연이윤율 수준을 하나의 均衡點으로 순환을 생각하여 동태적 메커니즘을 구성할 수 있다.(5)

다음에, 스미스의 地代理論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방정식을 얻어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다소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 하면, 스미스는 주로 差額地代에 의해 지대

(5) 자본가 소득분배분의 고유량의 주기적 순환을 해명한 Goodwin 모형과 유사하게 長期均衡狀態를 중심점으로 한 순환모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결정 원리를 선명하면서도, 때때로 이와 다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임금, 이윤의 高低는 가격 고저의 원인이지만, 地代는 그 結果"이므로, "지대에 고저가 있다든가 또는 전혀 지대를 가져다 주지 않게 되는 것은 상품가격이 높거나 낮기 때문"[WN, p. 146]이라고 원칙을 천명한다. 그렇지만 광물에 비해 의식주를 생산하는 "생산물 지대의 가치는 토지의 絶對的인 肥沃度에 비례하며, 상대적인 비옥도에 비례하지 않는다"[WN, p. 173]고 말한다. 특히, 지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석과 같은 재화의 가치는 效用 나아가 稀少性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데, Hollander(1987)은 여기에 주목하여, 스미스의 가치론이 신고전학파 가치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홀랜드의 주장은 스미스가 시장가격이 아니라, 自然價格을 分析對象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별로 타당하지 않지만, 스미스가 재화의 需要量 자체가 價格에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를 준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 두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X_1=f(p_1,\ p_2,\ w,\ r,\ n), \tag{2.4}$$

$$X_2=g(p_1,\ p_2,\ w,\ r,\ n). \tag{2.5}$$

나아가, 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本源的 投入要素중 토지가 희소하여 제약(constraint)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土地使用量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土地供給量($\bar{N}$)과 같아야 한다는 식을 얻는다.

$$N_1+N_2=b_1X_1+b_2X_2=\bar{N}. \tag{2.6}$$

이상에서 식 (2.1), (2.2), (2.3′), (2.4), (2.5), (2.6)을 모으면 스미스의 價格方程式體系가 구성되는데, 변수는 X_1, X_2, p_1, p_2, w, r, n 이므로 척도재를 p_1으로 하거나 $w=1$로 잡아, 解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스미스의 체계는 외형상 완결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여 (2.4), (2.5), (2.6)과 같은 수량관계가 유도되는지 스미스가 분명히 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미스의 體系는 이직 불충분한 설명이라고 평가된다. 스미스의 계승자라고 생각하는 리카도와 맬더스 간에 과잉생산의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서 소위 過剩生産論爭(gluts controversy)이 촉발된 것도 이러한 스미스의 불충분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2.3 맬더스의 價値論

맬더스는 스미스의 이론을 개발하여 支配勞動價値論을 확립한 학자로 해석된다. 1820년에 발간된 그의 主著『政治經濟學 原理』(*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맬더스는

投下勞動價値論의 적용가능성을 원초적으로 否定하고 있다. 맬더스는 자본축적과 토지사유가 없는 초기 原始社會라 하더라도 노동량이 투입된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단순히 노동량에 비례하여 평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아무리 "미개사회라 하더라도 도구와 같은 固定資本의 사용비율이 크거나 적음에 따라 각종 재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6) 投下勞動價値論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맬더스는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점에서는, 각종 상품이 지배하는 노동량의 크기가 상품의 相對的 交換價値와 정확히 비례한다"〔PP, p. 95〕고 말한다. 그렇지만 맬더스도 노동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需要에 비해 풍부한가 희소한가에 따라 다른 시점과 다른 국가간에는 그것이 지배하는 생활필수품의 量이 다르므로, 곡물과 노동의 평균값을 實質價値의 尺度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곡물이 노동에 비해서 비쌀 때는, 노동이 곡물에 비해서 쌀 수밖에 없기 때문"〔PP, p. 97〕이라고 말한다. Bonar(1885)도 지적하듯이 이와 같은 맬더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스미스와 같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리카도가 不變의 價値尺度(invariable measure of value)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생애의 말기에 리카도에 대응하기 위해 쓰여진 맬더스의 팜플렛 "價値尺度論"(Measure of Value)을 보면, 支配勞動價値論은 더욱 강화되어 간다. 즉 맬더스는 자연가치 또는 절대가치를 명목가치 또는 상대가치와 대비시킨 후, 自然價値는 지배노동량으로 측정됨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증명을 위해 맬더스는 임금이 支配하는 勞動量이 일정하고, 상품의 가치가 임금과 이윤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노동의 가치가 생산 시작 시점에 先貸(advance)된 경우 상품의 가치에는 직접적인 노동량 뿐만 아니라 間接的인 勞動量과 이에 따른 통상利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직접노동에 대한 대가와 이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소위 補償의 原理(principle of compensation)를 제시한다. 즉, "前期에 노동의 가치가 낮았다면, 이것은 큰 이윤에 의해 상쇄되므로 동일한 노동량에 의해 얻어지는 가치는 동일하게 된다"〔Malthus(1823, pp. 25~26)〕는 것이다.

따라서, 맬더스는 노동이 지배하는 상품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윤에 의해 상쇄되므로 노동의 가치는 다른 환경에서도 일정하게 되며, 勞動의 價値는 표준적인 척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價値尺度論"의 38페이지에 이를 입증하는 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맬더스의 증명은 결론을 미리 가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循環

(6) Malthu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in Sraffa 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II, p 59 이하 〔PP〕로 표기하고 숫자는 이 책의 페이지 수를 나타낸다.

論法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中村(1981)의 해석을 약간 고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곡물 X단위를 생산하는데, 노동 L단위만이 투입물로서 생산 초기에 사용된다고 보고, 곡물로 주어지는 단위당 賃金을 w라고 하자(단 $w<1$). 산출 1단위당 勞動投入係數를 l이라고 하고 쓰면(즉 $l=L/X$), 임금 w 단위에 투입되는 노동량은 wl 된다. 따라서, 이윤율 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frac{1-wl}{wl}=\frac{1}{wl}-1=\frac{1}{x}-1.$$

그런데 생산이 끝난 시점에서 임금 w에 투하된 노동량의 價値를 부가된 이윤과 함께 계산하면, 임금의 支配勞動量과 같다는 항등적 관계가 유도된다.

$$(1+r)x\equiv\frac{w}{w}\equiv 1.$$

맬디스는 이 항등적 관계에서 임금에 투하된 노동량과 이윤율간에 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보상'에 의해 임금의 가치가 일정하므로, 支配勞動量이 표준적 價値尺度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제는 위 식에서도 보듯이, 곡물생산에 노동만 사용되는 아주 간단한 경제에서만 성립되는 항등적 관계로서, 多部門 經濟에서 적용되기 어렵다. 사실 이러한 1부문 경제에서는, 투하노동가치론도 적용되며, 교환비율을 측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相對價格理論으로서 가치론의 필요성도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이론적인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맬더스가 지배노동가치론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관심이 경제 전체의 産出水準 變動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사실 맬더스는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자 중에서, 전반적 過剩生産 問題를 심각하게 생각한 거의 유일한 학자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의 GNP 디플레이터와 같은 척도로서 물가상승을 제외한 산출수준 변화를 측정할 필요성에 의해 支配勞動價値論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리카도의 投下勞動價値論

3.1. 리카도 價値論의 形成過程

리카도가 스미스의 『國富論』을 읽고 경제학에 입문하던 1812년 경에는 리카도는 스미스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價格理論에 있어서도, 스미스의 생산비설을 받아들여,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임금이 상승하여 일반물가 수준도 상승한다고 말한다(Ricardo全集, Vol.

Ⅲ, p. 243). 그러나 리카도의 分配理論의 골격이 완성되어 나타나는 1815년의 팜플렛 "利潤論"(Essays on Profit)을 보면 스미스를 비판하고,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貨金上昇은 利潤下落을 가져와 반드시 물가가 상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 팜플렛에서 리카도는, 실질임금이 주어지고, 지대가 생산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곡물을 가치척도재로 삼아 임금, 이윤, 지대의 分配分의 변동을 물량적으로 측정한 표(Ricardo全集, Vol. Ⅳ, p. 17)를 구성하여, 資本蓄積의 진전과 人口增加에 따라 경작지가 확대된 경우 利潤率이 下落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이 표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암묵적인 가정을 설명하면서, 리카도全集의 편집자 스라파는 리카도의 표는 곡물생산에 있어서 곡물만이 투입물로서 사용되는 소위 곡물비율모형(corn-ratio model)이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 解釋은 Pasinetti(1960)의 수학적 모형의 근거로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많은 경제학설사 교재에도 리카도 이론을 소개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러나 Hollander(1973)가 리카도의 텍스트를 자세히 연구한 결과 적절히 지적하듯이 리카도는 사실상 농업부분이라 하더라도 投入物이 곡물만 존재한다고 상정한 것은 아니며, 곡물과 같은 농업생산물과 함께 도구와 같은 공업생산물도 투입물로 사용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리카도는 전산업의 利潤率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농업부문의 이윤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土地 肥沃度의 저하에 따른 農業生産性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며, 농산물과 공산품간의 상대가격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윤율을 계산할 때 곡물을 尺度財로 삼아 모든 투입액을 곡물량으로 환산하고 있다. 따라서, 리카도의 問題意識은 신고전학파와는 달리 주어진 산출을 각 계급이 어떻게 分配하느냐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리카도가 이윤율의 변동을 계산하면서 相對價格의 변동은 무시했으나, 맬더스도 지적하고 리카도도 자인하듯이,[7] 이 계산은 정확하지 않다. 다음 식에서 보듯이 이윤율을 결정할 때, 産出物과 投入物의 수량적 비율 뿐만 아니라 상대가격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text{농업이윤율} = \frac{\text{농업산출량}}{\text{농산품투입량} + \text{공산품투입량} \times (\text{공산품가격}/\text{농산품가격})}$$

위 식에서도 보듯이 만약 農業生産性이 저하한다면, 곡물산출량에 비해 곡물투입량은 증가하겠지만 공산품가격에 비해 곡물가격이 상승하므로, 利潤率 下落을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

(7) Malthus의 지적은 그의 편지에 잘 나타나며(Ricardo全集, Vol. VIII, p. 44). 리카도의 인정은 답신에 나타난다(Ricardo全集, Vol. VIII. pp. 179~180), 이 당시의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Hollander(1973)과 Eatwell(1975) 및 그 이후 각종 이차 문헌을 정리한 Peach (1988)을 보면 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分配問題를 고려하면서 상대가격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 리카도가 처음 생각하듯이 아주 단순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리카도는 利潤率 변화와 相對價格 변화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리카도의 주저 『政治經濟學과 課稅의 原理』(*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제 1 판에서 모든 財貨의 價値를 동일한 양으로 재는 도구로서 투하노동가치론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리카도는 이 책에서 생산에 의해 공급이 확대가능한 商品의 價値는 그 상품에 投下된 勞動量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이질적인 노동도 평균적인 숙련과 기술을 가진 노동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러한 가치결정이 적용된다면, 이윤율을 비롯하여 相對的인 分配分은 쉽게 모두 투하노동량으로 측정될 것이며, 임금이 오르면 이윤이 하락한다는 소위 賃金—利潤 逆關係(inverse realtionship between wage and profit)도 성립될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 각기 다른 비율로 사용되거나, 固定資本의 내구성이 다르면,"(Ricardo全集, Vol. Ⅰ, p. 66) 투하노동가치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경우 임금이 오르면 이윤이 하락한다는 관계가 100 퍼센트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리카도는 이 '기묘한 효과'가 投下勞動價値論이라는 원리의 예외로서 투하노동가치론을 수정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정으로 말미암아 賃金이 오르면 物價가 오른다는 스미스의 생산비설적 논리가 타당하게 되지는 않으며 "實質賃金이 오르거나 임금재 생산에 투하되는 노동량이 증가하면 利潤이 하락하게 된다"(Ricardo全集, Vol. Ⅰ, p. 66)는 관계는 계속 주장한다.

이러한 리카도의 주장에 대해 맬더스는 그의 책 『政治經濟學 原理』에서 비판한다. 즉 만약 임금이 상승하고 이윤이 하락한다면, "고정자본이 없거나 유동자본의 순환속도가 빠른 상품의 경우……價格이 상승할 수도 있으므로,"(Ricardo全集, Vol. Ⅱ, pp. 62~64) 투하노동량이 더 들어가야만 商品의 價値가 증가한다는 리카도의 가치론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맬더스의 책을 보고 쓴 연구노트인 『맬더스 評註』(*Notes on Malthus*)의 해당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이 적용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한다. 즉, "맬더스씨가 바르게 주장하듯이, 勞動이 주로 投入되고, 시장에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많은 상품의 경우, 勞動의 價値가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Ricardo全集, Vol. Ⅱ, p. 64). 이에 따라 리카도는 그의 추종자 맥컬로크(J. McCulloch)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 原理가 있다고 말하게 된다.

나는 상품의 相對價値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규제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문제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勞動의 상대적 量과,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資本이 생산과정에 묶여 있는 동안 고려된 利潤率입니다(Ricardo全集, Vol. Ⅷ, p. 194).

리카도의 『政治經濟學과 課稅의 原理』 제 3 판(1821)에서도, 勞動價値論을 수정시키는 要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정자본의 내구성의 차이, 資本—勞動比率의 차이, 생산기간과 노동기간의 相異, 각기 다른 유동기간 등이다. 그러나 리카도는 이 책에서, 이러한 修正要因들이 가치에 주는 效果가 상당히 사소하다고 주장하면서, 투하노동가치론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리카도는 이 수정요인들에 의해 相對價値가 투하노동량의 比에 대해 달라질 정도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Ricardo全集, Vol. Ⅰ, p. 36). 이러한 리카도의 입장을 Stigler(1958)는 일찍이 '93 퍼센트 勞動價値論'이라고 한 바 있거니와, Barkai(1967)는 경험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간단한 예로, 두 상품 1단위 생산에 각각 a_1, a_2 노동만 투하되어 생산되고, 생산기간이 각각 t_1, t_2년, 年間 이자율이 r이라고 할 때 상품의 相對價値 p_1/p_2는 다음과 같다.

$$\frac{p_1}{p_2}=\frac{(1+r)^{t_1-t_2}a_1}{a_2}.$$

나아가 만약 이자율이 10 퍼센트 생산기간 차이(t_1-t_2)가 1/2이라면, 다음과 같이 相對價格은 투하노동량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frac{p_1}{p_2}=\frac{1.1^{0.5}a_1}{a_2}<1.06\frac{a_1}{a_2}.$$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相對價格과 投下勞動量의 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리카도가 『政治經濟學과 課稅의 原理』 제 3 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상당히 고집스럽게 투하노동가치론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리카도가 말년에 쓴 草稿 "絕對價値와 交換價値"(Absolute Value and Exchangeable Value)에도 그대로 나타나, 투하노동량중 직접노동과 간접노동의 비율이 사회적 평균과 같아서 임금과 이윤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일정한 '不變의 價値尺度'를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尺度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상적인 척도로서, 1단위 생산에 投下勞動量이 일정하게 들어가며, 직접노동량과 간접노동량의 비율이 社會的 平均과 같은 상품으로서 '金'을 상정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리카도는 많은 이론적 難點이 있음을 알면서도 投下勞動價値論을 유지

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리카도 스스로도 밝혔듯이, 分配를 규제하는 法則을 규명하는 데 경제학의 임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계급별 分配分의 추이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간단한 측정법을 얻기 위해서 理論的인 엄밀성을 희생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3.2. 리카도模型에 관한 數理的 檢討

이제 리카도의 가치론을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2部門 模型을 만들어 보겠다. 여기 만든 모형은 Pasinetti(1960)과 Negishi(1989) 등을 참고로 하여 좀더 간단하되, 리카도에서 나타나는 生産期間의 문제가 나타나도록 투입시점과 생산시점이 다르도록 하였다.

먼저 곡물을 생산하는 제 1 부문에서는 노동과 토지가 투입물로서 쓰이는데, 良質의 토지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勞動投入量 L_1 이 증가함에 따라 生産量 X_1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단 노동은 투입물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지불을 받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물이 산출되는 시점에서 後拂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X_1=F(L_1),\quad F'>0,\quad F''<0. \tag{3.1}$$

다음으로 제조업부문에서는 노동만이 투입물로 사용되며, 규모에 대해 收益不變이 작용한다고 가정된다. 노동 투입량을 L_2, 생산량을 X_2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X_2=aL_2,\quad a\text{는 양의 常數} \tag{3.2}$$

각 부문별 勞動投入量을 위하여, 總勞動所要量 L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L=L_1+L_2. \tag{3.3}$$

그런데 노동을 고용하는 데 쓰이는 名目賃金基金 w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노동 1단위당 명목임금이 w라고 한다면, 總勞動雇傭量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W=wL. \tag{3.4}$$

지대는 농업부문에서만 발생하고, 완전경쟁 상태에서는 가장 限界生産性이 낮은 투입단위 이상의 투입단위의 생산물은 모두 지대로 지주에 의해 수취된다. 따라서, 總地代 R은 농업부문의 총생산량에서 限界生産量을 모든 투입단위에 곱한 값을 뺀 값과 같다.

$$R=F(L_1)-L_1F'(L_1). \tag{3.5}$$

이제 리카도의 주장대로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노동이 先拂되므로 기간당 利潤率 r이 가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限界勞動生産性의 가치는

임금에다 이윤을 합한 값과 같다.

$$p_1F'(L_1)=w(1+r). \tag{3.6}$$

제조업부문에서는 생산성이 일정하므로 평균생산물의 價値가 생산비인 임금과 이윤의 原利合計와 같다.

$$p_2\left(\frac{X_2}{L_2}\right)=w(1+r). \tag{3.7}$$

위의 두 식을 보면, 양 부문의 生産期間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격이 농업부문의 노동투입량인 $F'(L_1)$의 逆數와 제조업부문의 산출 1단위당 노동투입량인 L_2/X_2의 비율과 같음을 알 수 있다.

$$\frac{p_1}{p_2}=\frac{1/F'(L_1)}{L_2/X_2}.$$

다음으로 地主는 자신의 소득인 지대를 가지고 제조품만을 소비하고 노동자는 賃金所得을 모두 농산물 소비에만 쓴다고 하자. 아울러 資本家는 이윤을 소비하지 않고 모두 투자에 쓴다고 가정한다. 이 때, 지대액은 제조품 산출액과 같다.

$$p_2X_2=p_1R. \tag{3.8}$$

그런데 (3.7)식에서, $L_2=p_2X_2/w(1+r)$ 이 도출되므로, (3.8)식과 (3.3)식을 합쳐서 다음과 같은 관계로 고쳐쓸 수 있다.

$$L=L_1+\frac{p_1R}{w(1+r)}. \tag{3.8'}$$

이제, 위의 8개의 독립된 方程式體系에서, 변수인 X_1, X_2, p_1, p_2, w, r, R, L_1, L_2, L을 구해야 하는데, 리카도의 생각에 따르면 相對價格만 고려하여 우선 척도재로서 농산물을 선택함으로서 한 가지 변수를 줄일 수 있다. 즉, $p_1=1$이다. 나아가 리카도는 장기적으로 맬더스의 인구원리에 의해 실질임금이 관습적인 최저 수준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했으므로, w를 주어진 것으로 하여 방정식체계를 완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賃金生存費說的 說明은 리카도에게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방정식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는 없다.

리카도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생각은 利潤率이 임금재 생산부문, 즉 이 모형에서는 농업부문에 의해서 獨立的으로 決定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위의 방정식체계에서, 모형의 일부가 배타적 자기완결성(block-recursiveness)을 가진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3.1), (3.4), (3.5), (3.6), (3.8)의 5개 식을 보면, 변수가 L_1, X_1, L, r, R의 5개가 되

므로 전체 방정식과 獨立的으로 변수값이 決定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말로 풀이서 하자면, 임금재인 農業部門의 生産量과 고용량, 지대, 그리고 특히 이윤율은 製造業部門의 産出量과는 獨立的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總利潤을 계산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총이윤은 총생산액에서 임금과 지대를 뺀 것이므로 $p_1X_1+p_2X_2-p_1R-p_1W$이며, 식 (3.5)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p_1L_1F'(L_1)+p_2X_2-p_1W$이 된다. 총이윤을 총자본인 貨金基金額 p_1W로 나누면, 利潤率이 계산되는데, 식(3.6)과 (3.7)을 이용하고 $L_1+L_2=L$임을 상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r=\frac{p_1L_1F'(L_1)+w(1+r)L_2-p_1wL}{p_1W}$$
$$=\frac{p_1L_1F'(L_1)+p_1F'(L_1)L_2-p_1wL}{p_1wL}=\frac{F'(L_1)}{w}-1.$$

이 식은 이윤율이 농업부문에서의 노동의 限界生産性과 貨金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사실을 말해주며, 바로 식 (3.6)의 농산물 價格方程式에서 이윤율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려준다.

물론 社會的 平均利潤率이 임금재를 생산하는 농업부문에서만 결정되며 비임금재 생산부문의 산출수준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리카도 체계에서 특색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리카도 체계의 몇 가지 특수한 가정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 중 특히 모든 재화 생산에 본원적 투입물로 쓰이는 勞動에 대한 대가인 貨金所得으로부터 나오는 貨金財에 대한 소비패턴이 관습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상대가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주목해야 한다. 즉 임금소득으로부터 양 재화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 실물적인 임금재 조합은 결정되어 있어서 實質所得이 실물적으로 일정하다는 가정이다. 이와 같은 가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리카도 체계에서 모형의 부분적 自己完結性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리카도 체계에 대한 비교정학적 分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도 달라질 것이며, 특히 농업부문의 개방이 잉글랜드 경제발전에 불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빌인 맬더스와의 穀物法論爭도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재서해볼 필요가 있다.

4. 結 論

지금까지 고전학파의 가치론의 두 조류인 支配勞動價値論과 投下勞動價値論을 정학적 분석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양자 모두 자연가격 또는 長期均衡價格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제시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그 분석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미스와 맬더스에 의해 주로 개발된 支配勞動價値論은 주로 經濟成長과 經濟變動을 설명하

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변수의 실질치를 구하는 관심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미시적 가격이론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需要-供給理論과 결합되어야 하는데 스미스나 맬더스 모두 아직 이론체계를 완전히 개발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요측면에서 需要量을 결정하는 要因에 대한 엄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며, 각 산업부문간의 관계를 고려하려는 一般均衡分析的 고려는 端初的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리카도의 投下勞動價値論은 계급별 所得分配의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相對價格 變化에 따른 분배분의 변화를 단순화시키는 편리함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재와 비임금재의 相互關係를 고려하려는 일반균형적 분석이 시도되어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아직 이론의 일관성 면에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리카도 자신도 인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생각할 때, 스미스와 맬더스의 가치론은 결국 限界革命 과정에서 新古典學派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며, 리카도의 가치론은 Sraffa(1960)에 의해 부활될 때까지 오랜 기간 크게 진전되지 못한 學說史的 緣由를 알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고전학파 당시의 산출수준에 관한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논쟁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엄밀한 비교정학적 分析을 통해 논쟁을 再構成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敎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 880-6379
팩시 : (02) 888-4454

參 考 文 獻

洪起玄 (1983) : "리카도의 利潤理論의 形成過程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中村廣治 (1981) : "リカァドウ,「マルサス『價値尺度論』評註」について",『廣島大學經濟學部紀要 年報經濟學』 **2**, 35～54.

Arrow, K., and F. Hahn(1971) : ***General Competitive Analysis***, San Fransisco, Holden-Day, Inc.

Barkai, Haim(1967) : "The Empirical Assumptions of Ricardo's 93 Per Cent. Labour Theory of Value," ***Economica*, 34**, 418～423.

Bonar, James(1885) : ***Malthus and His Work***, Macmillan and Co.

Brems, Hans(1986) : ***Pioneering Economic Theory, 1630～198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Dorfman, Robert(1989) : Thomas Robert Malthus and David Ricardo,"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 154~164.

Eatwell, J. (1975): "The Interpretation of Ricardo's 'Essay on Profits'," *Economica*, **42**, 182~187.

Garegnani, P. (1982): "Hollander's Interpretation of Ricardo's Early Theory of Profit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6**, 65~77.

_____(1984): "The Theory of Value and Distribution in the Classical Economists and Marx," *Oxford Economic Papers*, **36**, 291~325.

Hollander, Samuel(1973): "Ricardo's Analysis of the Profit Rate, 1813~15," *Economica*, **40**, 260~282.

_____(1979): *The Economics of David Ricardo*, Toronto Univ. Press.

_____(1987): *Classical Economics*.

Malthus, T.R. (1823): "The Measure of Value Stated and Illustrated," reprinted at New York, Kelley & Millan, Inc. (1957).

Meek, R.L. (1956): *Studies in the Labour Theory of Value*, 2nd ed.,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Negishi, Takashi(1988): "The Role of Demand in Adam Smith's Theory of Natural Price," *Seoul Journal of Economics*, **1.4**, 357~366.

_____(1989): *History of Economic Theory*, Amsterdam, North-Holland.

Pasinetti, L.L. (1960): "A Mathematical Formulation of the Ricardian System," *Review of Economic Studies*, **27**, 78~98.

Peach, Terry(1988): "David Ricardo: A Review of Some Interpretative Issues," in W.O. Thweatt (ed.), *Classical Political Economy*,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Ong, Nai-Pew(1983): "Ricardo's Invariable Measure of Value and Sraffa's 'Stanadard Commodit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52**, 207~227.

Ricardo, Davi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I~VIII, ed. by P. Sraffa(1951~1973), Cambridge Univ. Press.

Roncaglia, A. (1978): *Sraffa and the Theory of Prices*, New York, John Wiley & Sons.

Samuelson, Paul(1978): "The Canonical Classical Model of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6**, 1415~1434.

Schumpeter, J. (1954):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New York, George Allen & Unwin.

Smith, Adam(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Modern Library edition, ed. by E. Cannan(1937), 金秀行 譯(1992), 서울, 동아출판사.

Sraffa, Piero(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Univ. Press.

Stigler, G.J. (1958): "Ricardo and the 93 Per Cent LaborTheory of Value," *American Economic Review*, **48**, 357~367.

_____(1965): *Essays on the History of Economics*, Chicago Univ. Press.